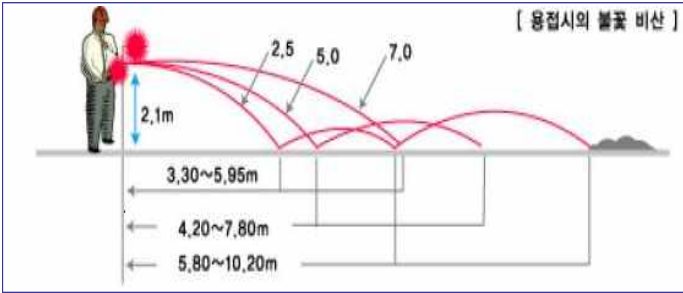


용접작업시 화재예방 안전수칙

□ 용접작업의 위험성



▶ 점화원 관리

용접작업시 불꽃·불뚝이 비산하여 작업장 부근 가연물에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미리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완료한 뒤 용접·용단작업을 합니다

□ 용접작업 전

- 용접 · 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(KOSHA Code : F-2-1999)
 - 제4호 화재감시인(4.1 화재감시인의 배치)
 - 작업반경내(11m) 불티 등에 의한 발화 가능성 등 대비한 소화설비 구비
 - 제5호 용접 · 용단 작업시의 화재예방 안전수칙
 -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예상화재에 적합한 소화기 비치 등

▶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

(1) 화기작업 알림
작업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(안전관할부서장)에게 사전통보

(2)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
물통과 건조사(마른모래), 소화기, 용접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

□ 용접작업 중

- 가연성 · 폭발성,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
-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
-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

□ 용접작업 후

-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**30분 이상 확인**해야 합니다.

용접 · 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10대 안전수칙

■ 작업 전에는

- 작업장 주변 반경 11m이내에는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 · 폭발성의 위험물을 제거하여야 합니다
- 안전거리 확보(11m)가 곤란한 경우에는 불씨가 날리는 것을 막는 방법 (불꽃받이 또는 방염시트)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-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, 마른모래 등을 비치하고 소화전이 있으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호스를 준비하여야 합니다
- 화재감시인을 배치하여 주변을 감시하게 하거나 유사시 소화기 · 마른모래 · 소방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
- 작업장의 시설주, 안전관리자에게 미리 이야기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용접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

■ 작업 중에는

- 실내의 다른 작업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주변의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.
- 옆으로 튀는 불꽃을 확인하여 다른 장소에 떨어지거나 불이 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.
- 가스 용기는 용접작업장과 먼 곳에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하고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
- 작업장내에는 통풍 ·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

■ 작업 후에는

-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하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기 위해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.